

02 보도 새내기, 한성인이 되다 03 심층보도 성적세척 변경 04 사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치다 06 학술 혈액형 심리론을 만나요? 07 문화 새내기, 여기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교수님과 함께하는 2014 입학식'이 열렸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2014 입학식'에는 약 1,400명의 신입생, 200여 명의 교수, 8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한성 새내기 서약식'이 진행되었다. 신입생들의 목표가 담긴 서약문은 강신일 총장에게 전달되었으며 4년 동안 보관된다. >>2면에 계속

지난학기, 갑작스런 성적 세척 변경으로 학생들 당황

지난학기 갑작스럽게 성적세척이 변경되었다. 바로 A학점의 비율이 30%에서 20%로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B학점이 늘어 학생들의 성적표에서는 B가 내리게 되었다. 당시 기말고사를 앞 둔 학생들은 학교의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많은 학생들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대학가의 '안녕들하십니까?' 열풍과 함께 우리학교 곳곳에 성적세척을 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한 학생은 1인 시위로 대응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교무처장은 낙산의 메아리에 <성적평가에 따른 시행세척 변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분개했다. 또한 현 사안에 대해 응답이 없는 전 총학생회와 공론화 하지 않고 단행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 커져갔다.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학생들의 규탄 속에서 응답했던 것은 인문대 학생회뿐이었다. 대구구조개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을 쥐어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학교는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론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설명을 납득 할 수 없었다. 또한 세척 변경이 날치기식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냐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면에 계속

대학기관평가인증 취득, 모범대학 우수사례 선정

96개 신청대학 중
87개 대학 '인증'
인증대학 중 17개
대학이 모범대학
우수사례 선정

지난 10월 30일 대학기관평가를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장방문평가단'이 본교를 방문했다. 대학기관평가는 전국(4년제)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이다. 평가는 6개의 평가영역, '17개의 평가부문', '54개의 평가준칙(6개 필수평가준거 포함)'으로 나뉘어 3일간 진행됐다. 이번 대학기관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국가로부터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재정지원평가', '대학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당시 총 평가에서는 김태현(순천향대학교 교수) 방문평가위원단장이 "이번 방문평가를 통해 한성대학교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몇몇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후 12월에 발표된 대학기관평가 결과는 96개의 신청대학 중 87개의 대학이 인증(인증유효기간 5년) 판정을 받고, 3개 대학이 조건부인증(인증유효기간 1년)을, 6개 대학이 인증유예(재평가 전까지 불인증판정을 받았다. 본교는 대학기관평가 인증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모범대학(총 17개 대학)까지 선정되었다. 모범대학은 해당 학교에 우수한 항목을 현장방문평가단의 추천과 평가결과로 선정된다. 본교는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다수의 대출도서 장수 ▲지역주민을 위한 컴퓨터 교육과 같은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모범사례에 선정됐다.

이에 윤구(기획전략팀) 과장은 "이번 평가는 대학기관인증평가가 실시되면서부터 2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자체진단평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 평가영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켰다"며 "5년 후 다시 있을 기관평가에서 더욱 좋은 성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모범대학 선정은 타대학교의 모범이 될 것이고 이는 학교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컴퓨터 교육은 교내 학생들에게까지 대상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신일 총장은 "이번 모범대학 선정과 같이 학교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교육역량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학기관평가인

증은 앞으로 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올해 있을 과제는 '재정지원대학평가', '구조조정평가'가 있다. 모범사례에 선정된 대학기관평가처럼 남은 과제도 훌륭한 성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평가의 경우 올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 하나이다. 구조조정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에 신입생의 정원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 대학가는 공지에 몰려있다. 대학기관평가는 시작일 뿐, 아직도 각종 평가들이 남아있다. 우리학교는 대학기관평가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남은 평가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해본다. >>2면에 계속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 3,000만원 횡령 인정

지난 12월 30일 이종혁 총학생회장은 성북구청장서로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이 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가 접수되고 학교 당국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세원 학생복지위원장 역시 횡령을 했다는 탄원서가 공개되며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결국 혐의를 인정하였다. 학교 측은 "학교 당국에서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태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학교 자체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규정에 입각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낙산의 메아리에 글을 게시했다.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은 회식비와 교통비로 1,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지난 1월 중순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은 횡령혐의를 인정하고 학생지원팀 측에 3,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은 지난 19일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제직당했다. >>다음호에 계속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지난 2월 20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낙산관 안은 졸업생을 축하하는 귀빈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었다. 이날 박사 21명, 석사 190명, 학부 1,247명,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63명으로 총 1,52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강신일 총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학위과정을 마치는 결실을 맺었다. 학문을 최대한 발휘하고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윌스톤 처칠이 옥스퍼드 졸업식 축사에서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인생은 끊임 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의 졸업생 수는 지난해보다 68명이 증가했다. 수상의 영예는 대학원 57명, 학부 1,166명, 총 1,223명에게 돌아갔다. 대학원에서 ▲최우수논문상 8명 ▲특별공로상 2명 ▲성적우수상 25명 ▲공로상 20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2명이 수상했다. 학부에서는 ▲우훈상 1명 ▲이사장상 1명 ▲성적우수상 22명 ▲학과추천 81명 ▲특별 공로상 9명 ▲공문회장상 1명이 수상했고, 학사학위과정에서는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상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우훈상을 수상한 이지매(제디졸) 씨는 "학위수여식 중에 총장님과 동문회장님 말씀을 듣고 울컥했다. 멀리서 찾아온 가족들에게 고맙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신경써주시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후배들에게 "남들이 제시하는 기준 말고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학부 학생들이 아닌 대학원 졸업생들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후기 학위수여식은 학부와 대학원 졸업생들이 함께하는 학위수여식이 되어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면에 계속



▲이지매(제디졸) 학생이 우훈상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

HBS 편성표

방송 일시	월	화	수	목	금
아침 8:40 ~9:00	생방송 낙산의 아침은	생방송 낙산의 아침은	낙산의 아침은	낙산의 아침은	낙산의 아침은
	채스	deep to deep	채스	deep to deep	deep to deep
정심 12:10 ~12:50	매주 월요일 휴방	스물하나	미스터리 가든	스물하나	미스터리 가든
	여행수다, 여수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여행수다, 여수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저녁 5:10 ~5:40	채스(재)	deep to deep(재)	채스(재)	deep to deep(재)	deep to deep(재)
	스물하나(재)	미스터리 가든(재)	스물하나(재)	미스터리 가든(재)	미스터리 가든(재)

'교수님과 함께하는 2014 입학식' 성황리에 마쳐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교수님과 함께하는 2014 입학식'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웰리힐리파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신입생 입학식'과 '단과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협의회'가 통합된 행사이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올해 처음으로 '한성 새내기 서약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성 새내기 서약식'은 신입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자 마련된 행사로 신입생들은 학교에서 작성한 서약문 ▲한성인으로서 한성을 사랑하겠다 ▲올바른 한성인으로 학교 규정을 준수하겠다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는 한성인이 되겠다를 낭독하며 다짐했다. 또한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스스로 이루고 싶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는 모습

은 목표 두 가지를 적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 강신일 총장은 "앞으로 펼쳐질 대학생활은 여러분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며 성공을 좌우

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대학생활을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호응

을 받은 시간은 신입생 환영행사였다. 신입생 환영행사는 해외봉사단 '에그리나'의 사물놀이, 댄스동아리 N.O.D의 공연, 무용과의 진도복춤, 외부 공연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외부 공연은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너무 길게 진행되어 공연 뒷부분은 다소 산만했다.

학과별 친교시간은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학과별로 각각 다른 소강당에 모여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교수와 조교의 소개, 학과 및 전공 소개, 수강신청 안내, 질문시간,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자체 프로그램은 각과마다 특색있게 구성되었다. 특히 영어영문학과는 신입생들의 장기자랑, 한국어문학부는 선배와의 대화(SBS PD, 교사)로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희진(경영 1) 학생

은 "교수님께서 고민이 있으면 많이 찾아와 달라고 말씀해주셔서 좋았다.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입학식은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이색적으로 진행되어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산외대 OT사례로 어수선했던 입학시즌에 우리학교의 과감한 행보는 신입생들에게 소속감과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입학식을 진행하는 동안 교수, 직원, 조교, 신입생 모두 같은 옷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여동윤(지정 1) 학생은 "교수님, 동기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 단합되는 것 같아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을 보여 교직원과 조교들로 구성된 진행위원만으로는 많은 학생들을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튿날 야외활동에서는 스키복 등 몇몇 장비를 신입생 본인이 준비해 와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식을 선택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된 와중에도 신입생들은 같은 과 선배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없어 다소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교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등 이색적인 입학식의 보완할 점들로 지적됐다.

한성신문 기자 hje6757@hansung.ac.kr

한성인을 위한 앱, 응답하라 통학버스



▲'응답하라 통학버스' 앱실행 모습

지각을 할 것 같다. 아직 지하철에서 내리진 않았지만 걸어서 올라가기엔 촉박하다. 버스타 택시를 타야 제시간에 도착할 것 같다면 빠르게 버스 앱을 검색해 볼 것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한성대용 마을버스 앱 '응답하라 통학버스'(이하 버스 앱)가 탄생했다. 이 버스 앱은 교내 인터넷 서비스 동아리 '파랑새'에서 만든 것으로 ▲성북02 ▲종로03 ▲서촌버스의 버스이용정보를 알 수 있다.

응답하라 통학버스티(파랑새 동아리)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앱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만든 취지만큼 많은 학생들이 기본 좋게 사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파랑새'는 앱개발 동아리로 각 단과 학생들이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들은 버스 앱을 만들기 위해 여섯 명의 학생이 세 개의 팀(개발·기획·디자인)으로 나누어 작업했다.

개발과정에 대해 응답하라 통학버스티는 "버스 앱은 2학기에 기획했다. 기초를 배우고 사전조사를 실시했다"며 "앱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찾아가 물어보거나 용산전자상가로 가는 등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고, 기말고

사가 끝난 후부터 앱 개발을 시작했

다"고 답했다. '응답하라 통학버스'는 메인화면에 출발지점별(동묘앞·동대문·창신, 한성대학교, 한성대입구역)로 세 개의 항목이 나뉘어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앱은 공식버전이 아닌 베타버전이다.

아직 서촌버스에 대한 이용정보가 빠져있다. 마을버스와 달리 서촌버스는 GPS가 설치되지 않아 버스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에 GPS를 달수 있도록 시정중이라고 한다.

김영호(경영학과 3) 파랑새동아리 회장은 "응답하라 통학버스는 심플함이 특징이다. 많은 링크를 만들지 않고, 버스 이용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며 "현재의 앱은 베타버전이다. 3월 이내로 스타벅스의 이용정보도 추가하여 정식버전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제점은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응답하라 통학버스'처럼 학생들을 위한 앱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응답하라 통학버스'에 많은 응원이 있길 바란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등 정란

김창룡(한국어문학부) 교수 김 교수는 지난 2월 20일 『고구려의 설화문학』(보고사)을 출간하였다.

박재홍(무용학과) 교수 박 교수는 지난 1월 17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했다.

김귀옥(교양과정) 교수 김 교수는 지난 1월 27일 『구술사 연구』(한울아카데미)를 발간했다.

이상혁(언어교육원) 교수 이 교수는 지난 2월 20일 경희대 오비스홀에서 개최된 우리어문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근대 학문 형성기 근대국어의 성격과 기점의 문제'로 기회 주제 발표를 했다.

학사복 반납에 졸업생들 불만

학위수여식이 끝나고 학교 커뮤니티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에 학사복 반납에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물의 내용은 주로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업준위)에 실망했다는 것이었다.

학사복 반납에 대한 문제로 반납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게시글은 '한두 번 하는 행사도 아닌데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닌가?', '꼭 당일까지 반납했어야 하는 가?', '대기 인원 통솔이 부족하지 않았나?' 등이 있었다.

낙메에 글을 올린 김윤태 졸업생은 "학사복을 반납하기 위해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다. 2층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다른 글을 올린 김도연 졸업생은 "너무 실망스러운 학위수여식이 되었다. 학사복 대여는 예전부터 실시 되어온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며 "일하면서 육박하는 졸업준비를 보기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불만에 김경민(역사 4) 졸업준비위원장은 "작년에는 학사복 반

납을 야외에서 진행했지만, 기다리는 졸업생과 학부모임들이 건강이 걱정되어 실내 반납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졸업식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복 반납을 남녀 구분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학사복 대여료(5,000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예전에는 보증금을 내고 학사복을 대여한 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세탁비 명목으로 대여료를 받았다. 결국 학생들은 대여료를 보증금으로 생각했지만, 5,000원은 대여료 인한 세탁비로 반납되지 않았다.

이에 그는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학사복이 구겨져있고, 더럽기 때문에 세탁이 꼭 필요하다. 학사복 대여료 5,000원은 전부 세탁비로만 사용된다. 학사복 대여는 지원받는 것은 없다"며 "문제점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학생들의 민원을 항상 기다리겠다. 언제든지 전화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2013년도 하반기 감사결과 발표돼

부실한 감사 결과로 외부감사 필요성 대두

지난 2월 17일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2013년도 하반기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감사는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예년과는 달리 많은 학생들이 예의주시했다.

이번 감사는 공개기구(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 연합회)와 각 단과대(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공과대학) 학생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학생회장의 횡령혐의로 총학생회는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문(경영 3) 감사국장, 조지현(기계 3) 감사2국장을 필두로 감사가 진행됐으며 회계감사와 사업/공약감사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총대의원회는 '경고 2회'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 학생복지위원회와 졸업준비위원회는 각각 '경고 1회'조치를 받아 환불금액은 없지만 각각 미사용금 91,290원과 249,910원 환불을 통보받았다.

동아리 연합회는 감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문대 학생회는 '경고 2회',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경고 1회', 예술대 학생회는 '경고 2회', 공과대 학생회는 '경고 0회'로 4개 단과대 학생회 모두 환불할 금액은 없다. 이 결과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돼 있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난 감사결과와 이번 감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상세내용들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동문 감사 1국장은 "방학 중에 하반기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2월에 졸업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상세내용이 포함된 감사자료집은 대의원총회 전에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정확한 말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김진호 전 총

학생회장의 횡령사건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와 경찰의 조사 때문에 총학생회의 감사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진상조사에는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의 횡령뿐만 아니라 김세원 전 학생복지위원장의 횡령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와는 달리 학생복지위원회의 감사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 점에 대해 문자 김동문 감사 1국장은 "김세원 전 학생복지위원장의 횡령 건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며 정계결과를 곧 공지할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학생들은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과 김세원 전 학생복지위원장의 횡령으로 공개기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이에 외부감사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감사가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더 엄격한 감사제도가 필요하다.

한성신문 기자 hje6757@hansung.ac.kr

학군사관(ROTC) 55·56기 모집안내

2014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 지원자격

- 연 령 :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 55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 56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4년 3월 3일 ~ 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5 (토), 합격자 발표 : 4. 25 (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 28 (월) ~ 5. 15 (목), 합격자 발표 : 6. 5 (목)
 - 신원조회 : 6. 9 (월) ~ 8. 17 (일)
 - 최종합격 : 8. 21 (목)
- 문의처 : 학군교 (043)830-6031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 Training Corps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 양성과정입니다.



미래를 향한 젊은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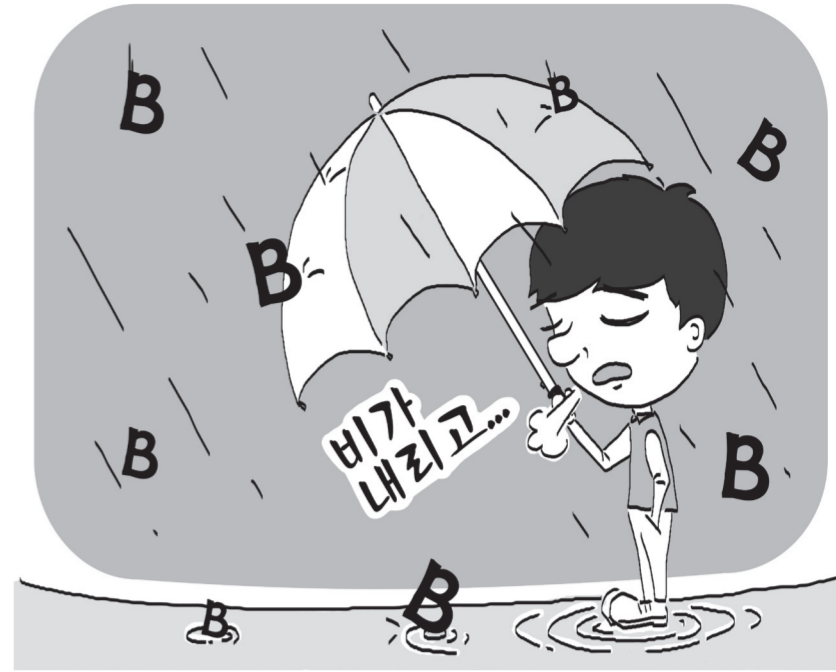
ROTC!

성적세척 변경, 내 성적표의 B(悲)가

지난 학기 갑작스러운 A학점 비율의 변경, 기말고사를 앞 둔 학생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성적세척 변경의 일방적인 통보로 많은 학생들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교무처장은 낙산의 메아리에 <성적평가에 따른 시행세척 변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성적세척 변경을 공식화 했다.

현 사안에 대해 응답이 없는 전 총학생회와 공론화 하지 않고 단행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세척 변경 이후 한성인은 어떤 성적표를 손에 쥐었는가.

지난 학기, 성적세척 변경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짚고, 세척 변경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현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성대 신문사가 취재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현정은 기자 hj66757@hansung.ac.kr

세척 변경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나?

당신은 성적세척 변경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을 통해 '학점비율이 축소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학교 측은 세척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공지했지만 글을 본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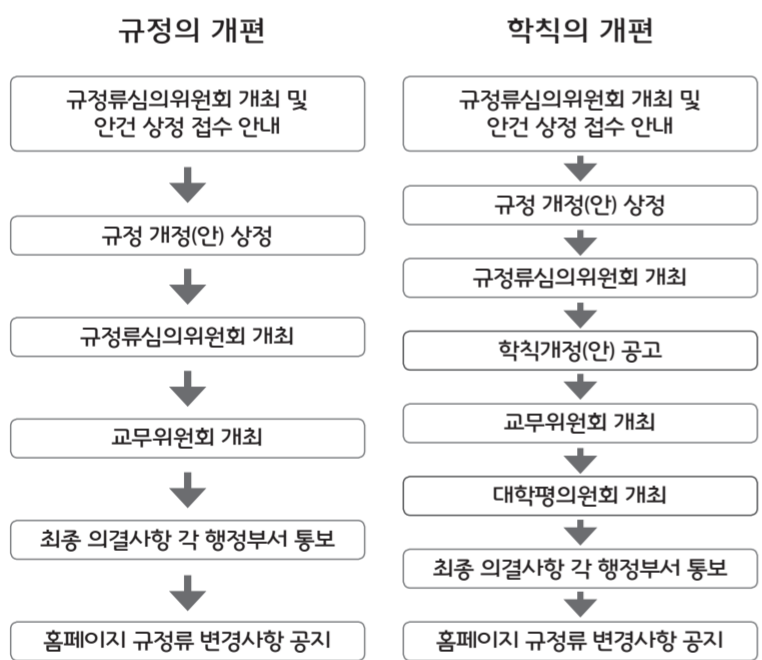
하지만 학생들은 단지 성적세척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불안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성적에 가장 민감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성적세척 변경에 대한 공지가 기말고사 기간에 올라왔다는 것 ▲변경사항을 낙산의 메아리에 공지를 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이유 중 학생들은 '성적에 가장 민감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가장 공감했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세척 변경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경 전 공지할 수 없었다'고 학생들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에 설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성적세척 변경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을까? '납치기 통과'라는 의미를 품은 학생들을 위해 세척변경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척은 규정(안)공고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적세척 변경은 규정의 개편 절차를 따랐다. 규정의 개편은 학칙의 개편과는 달리 '학칙 개정(안)공고'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평의회 개최'의 과정이 생략된다. 세척은 학칙의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학칙의 하위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과 학칙의 절차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성적세척 변경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성적세척 변경이 결정된 후 학교는 즉시 이 사실을 공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학과 평가를 위해 긴박한 상황이었던 학생들의 의견을 왜 먼저 묻지 않았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등에 대한 아쉬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성적세척 Q&A

성적세척 변경과 관련해 신민철 교무처장에게 묻다

성적세척 변경에 대해 신민철 교무처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현재 우리학교 지표는 어떤 수준인가?

A: 2013년도 10월에 "2014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식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학교의 평가점수가 서울 수도권 61개 대학 중 52위를 기록했다. 우리학교는 힘겹게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모면했던 상황이었다. 충분한 공지가 없이 새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올해 진행될 "2015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모면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진행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사관리를 포함한 전 평가분야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교육부가 새로 제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내용은 2014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하여 165개의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4-5등급에 속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차등 감축 및 국가장학금

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Q: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음 학기부터 적용할 수는 없었나?

A: "2011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시부터 우리학교는 꾸준히 지표관리를 해 왔으나 "2014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점수가 "2013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점수 대비 하락한 것을 2013년 10월에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상대점수로 진행하므로 2012년도에 타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개선노력을 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따라서 2014년도에 진행될 "2015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회피하고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사관리를 포함한 전 평가분야 지표의 추가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4년에 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은 2013년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부득이 2013년도 2학기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Q: 성적세척 변경은 언제 확정되었으며 왜 결정된 즉시 학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나?

A: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도 10월 16일자로 교육부가 "2014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각 대학에 공식통보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2013년도 2학기 중에 관련 규정개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11월 말경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12월 초 공문을 통해 담당 교수님들에게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따라서 안건이 확정된 즉시 공개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13년 10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에서 새로운 대학구조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 우리 대학이 서둘러 시행한 학사지표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Q: 왜 학사공지가 아니라 '낙산의 메아리'에 먼저 공지했는가?

A: 학생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 및 개인의 의견을 편리하게 올릴 만한 곳을 찾다가 낙산의

메아리가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낙산의 메아리에 일단 게시했다. 이후, 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학사공지에도 추가적으로 공지했다.

Q: A학점은 비율이 30%에서 20%로 줄었다. 성적평가에서 A학점과 B학점 비율의 총합이 70%인데 그럼 B학점의 비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난 것인가?

A: A학점 비율이 줄어든 만큼 B학점 비율이 늘어난 것이 맞다. 2013학년도 1학기, 2학기 A, B학점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1학기는 A학점 비율 31%, B학점 비율 37%로 나타났고, 2학기의 경우 A학점 비율은 21%, B학점 비율은 47%로 B학점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 소수인원강의의 절대평가가 사라져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소수인원강의를 기피할텐데 그럼 강의가 폐강되지 않을까?

A: 현재 우리 대학의 폐강기준

은 교양은 수강인원 20명 미만, 전공은 10명 미만 시 폐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졸업필수 과목 또는 학과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강시키지 않고 있다.

Q: 우리학교는 타 대학보다 A학점 분포가 낮다. 여기서 A학점 비율을 줄인다면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타 대학 학생들보다 취업에 불리하지 않을까?

A: 세척개정 전후 우리학교 학생들의 평점평균을 살펴보면 2013년도 1학기 3.19에서 2013년도 2학기 3.12로 0.07정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생각만큼 학점 하락 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취업 시 학점이 약간 높은 것 보다는 우리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어 부실대학 출신이라는 오명이 취업에 더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대, 세종대의 경우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어 입시 등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A학점 20%, 인근 대학 중엔 없어

A학점 비중은 결국 20%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본교 근처에 위치한 타 대학의 성적 비중은 어떨까?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A학점은 수강생의 최대 30%, A학점과 B학점의 합은 70%이다.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강의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성균관대학교는 전공기본, 교양 강의일 경우 A학점은 최대 30% 이내, 전공심화 강의는 최대 40%이다. 수강인원이 19명 이하일 경우 A학점은 50%이다. 서경대학교는 A학점이 최대 35%, A학점과 B학점은 75%이다. 국민대학교는 수강인원에 따라 학점비율이 달라진다. 20명 이상인 강의는 A학점이 30%, A학점과 B학점의 합은 70%이다. 20명 미만인 강의일 경우 A학점은 40%, A학점과 B학점의 합은 90%이다. 우리학교 근처에 위치한 대학 중 A학점이 20%인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불안 학생들, 행동으로 옮기다

작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당시 미래관 지하의 한쪽 벽면에는 성적세척에 관한 학생들의 대다수로 도배되었다. 성적세척변경 공고가 늦게 이루어진 점, 학생의 의견을 일절 수렴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자보를 붙인 박식관(문역 4) 학생은 "세척이 변경된 사유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을 학교가 기말고사 기간에 급하게 통보 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식성(행정 4) 학생은 미래관에서 5일간 1인 침묵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피켓은 '학교 측은 학생을 무시하고 성적비중 조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사안에 대해 학생대표와 직접 협상하고 그 과정을 모든 학우들에게 공개할 것'이 주 내용이었다. 성적세척 변경 공지 전, 낙산의 메아리에는 약 10개의 문의글이 올라왔다. 성적세척 변경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라는 내용이었다. 교무처장의 공지글이 올라오자 댓글은 30여 개가 달리고 약 10개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지난 2학기 성적세척 변경은 그야말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뜨거운 감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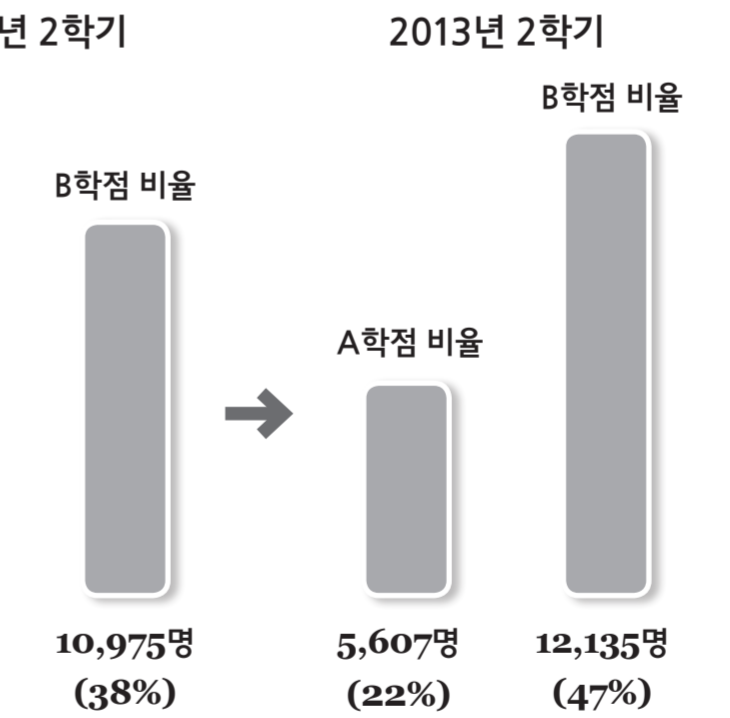
학점 평균은 세척 변경 후 소폭 하락

세척 변경 전인 지난 2013년 1학기 전체 총 학점 평균은 3.196에서 3.125로 소폭 하락했다. 각 학과별 평균 평점 역시 소폭 하락이다.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의 평균 평점이 낮아진 것으로 성적세척 변경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성적표에 비가 내린다

전체 학점 평균은 소폭 하락했지만 학생들 성적표에는 비가 내린다. 세척 변경 전인 지난 2012년 2학기

와 세척 변경 후인 2013년 2학기 학점 비율을 보자. 세척변경 전인 2012년 2학기 B학점의 평균 비율은 약 30~40% 사이였다면, 세척 변경 후인 2013년 2학기 B학점의 평균 비율은 약 45~50%로 증가했다. A학점의 감소와 B학점의 증가로 평균학점은 소폭 하락했지만 학생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성적의 하락은 평균치 그 이상일 것이다. B학점의 증가와 A학점의 감소는 서로 상쇄되어 전체 학점 평균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체 학점 평균 역시 세척 변경 전 보다 하락했고,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적표에서는 소폭 하락이 아니라는 점에



서 세척 변경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번 성적세척 변경으로 성적에 타격을 입은 학생들은 3점대 초반의 학생들이기 보다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의 학생들이었다. 세척 변경 전이었다면 충분히 A학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세척 변경의 효과로 B학점으로 떨어진 학생들 말이다.

학점 통계로 살펴보면 이번 학점 세척 변경의 결과, 전공과목에서 약 50퍼센트에 가까운 학생들이 B학점을 받고, A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20%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인원의 강의에서는 어떻게, 전공 수업은 10명 이하의 경우 폐강되지만 10명을 넘으면 설장된다. 예를 들어 전공강의 수강인원이 12명이라면 이중 2명에서 3명만이 A학점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학점을 '짜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학점이 후하지 않은 만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분명 학생의 본분이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세척 변경 이전에도 학점이 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성적세척 변경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또한 세척 변경은 학교가 구조개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 명분 역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성적세척 변경은 학생들에게 큰 문제였다.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한 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기말고사 직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또한 학생들은 그들을 대변해 줄 총학생회의 부재 속에서 기말 고도 없었다. 학교는 구조개혁에서 살아남았지만 학생들은 취업의 문 앞에서 비가 내리는 성적표를 들고 서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소수인원 강의만이라도 이전처럼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세척이 변경된 지금, 학생들의 목소리는 말 그대로 '낙산의 메아리'로 그치고 말았다. 학교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정작 성과와 가장 밀접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 학교는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만 찾지 말고, 학생들의 반발을 잠재울만한 충분한 설득방안에도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 탐방 -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학생, 짓밟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치다

운영진 문동희 씨 “무관심은 독재자를 위한 일일 뿐”

지난 달 17일, 유엔(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발표를 통해 유엔기구나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침해실태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북한 최고지도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사회에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 단체가 있다. 바로 '북한인권학생연대'이다.



▲ 북한인권학생연대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퇴장'을 외치고 있다.

북한인권학생연대는 2003년도 결성 이후로 북한의 인권유린실태를 지속적으로 대학사회에 알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기자가 직접 북한인권학생연대의 사무국장 문동희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북한인권학생연대의 주요활동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학생들이 북한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올바른 시선을 가지도록 돕기 위해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주 간 1년에 4차례 씩, 연구위원이나 국회의원 등 관련 전문가 위원이나 국회의원 등 관련 전문가의 강의를 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황진하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들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달에 진행될 강의의 주제는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향후 전

망',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북한인권법의 의미와 중요성' 등입니다.

탈북고아 강제복속, 외교부와 라오스 대사관에 항의방문을 하다

작년 5월에 라오스에서 자행한 탈북고아 복속에 대한 항의시위를 전담했습니다. 탈북고아 복속문제에 난민협약, 아동권리에 대한 보호협약,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다는 항의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접근하기 전에 북한 측에서 신속하게 라오스 정부와 접촉하여 탈북자들을 빼돌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교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외교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인권 사진전 개최

북한인권 사진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울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전북대 등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진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인권실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 정치범수용소의 문제 등입니다.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펼쳐

탈북자대안학교인 '겨레얼학교'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봄봄봄 봉사활동'과 '고구마 봉사활동' 등 탈북자를 수혜자의 입장에서 두고 하는 기존의 봉사활동이 아닌, 탈북자와 남한 학생이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도 진행합니다. 탈북자와 남한 대학생이 함께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페이지와 함께 <천원의 기억> 프로젝트 진행하다

작년 초 카카오페이지,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함께 탈북여성을 돕기 위한 <천원의 기억>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페이지를 통해서 기부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탈북여성을 구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는 주로 홍보 및 모금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생들의 UN대회를 개최해 북한 인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공론의 장을 열거나, 각 대학교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동아리를 만들고 지원하는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침해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구체적인 사례는?

기본적인 생명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권 침해문제도 심각합니다. 북한은 1956년에 출신성분 조사를 실시해 모든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

층, 적대계층으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6.25전쟁 당시 가족 중 월남한 사람이 있다면 적대계층이 되어 대학진학, 당 입당, 직장 배치 등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은 근거 없는 차별제도가 아직도 북한에서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통일정보관에서 나오는 '북한인권백서' 또는 데이빗 호크의 '김취진 수용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학생들에게 말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좌우이념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아직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정치적 논쟁과 연관되다 보니 지쳐서 오히려 북한 인권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들이 전 세계인에게 바라는 일이 바로 이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심취해있고 그것을 누구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합니다.

즉, 우리의 무관심은 결국 김정은을 위한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선(善)의 관점으로 북한 인권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3월이 되자 날씨가 풀리고 봄이 오기 시작했다. 지금도 억압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도대체 언제쯤 봄이 찾아올까.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지난 1월 북한인권학생연대는 김정은의 생일선물로 한국 국회의원이 북한 인권법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 직업, 경제와 통(通)하다

취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다양한 취업 정보 때문이다?!

인간의 소비 심리를 설명하는 개념 중 '선택의 역설'이란 것이 있다. '선택의 역설'이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견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여러 대상 중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대상을 선택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만족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유발된다.

이 같은 현상은 선택할 대상이 많아지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져, 그로 인해 실제 최종 선택한 것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져 유발될 수 있다. 혹은 온종일 실제 가장 적합한 대상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나에게 보다 적합한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형성되어 만족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여자 친구에게 귀걸이 세 개를 보여주고 자신이 갖

고 싶은 귀걸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가장 원하는 귀걸이가 무엇인지 쉽게 고를 수 있다.

하지만 귀걸이를 100여개 이상 보여주고, 이 중에서 원하는 귀걸이를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쉽게 고르기 못할 것이다. 기껏 귀걸이 하나를 어렵게 골랐다가 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귀걸이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되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선택의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취업 상황 또한 선택의 역설에 직면해 있는 듯하다.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택의 역설이 발생한다. '누구는 방학

동안 자격증을 취득했다, '누구는 영어 성적을 크게 올렸다', '누구는 인턴 경험을 했다' 등등의 얘기를 전해 듣게 되면,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아무리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낸 구직자라 하더라도 불안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역설은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드러난다.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 SK 같은 그룹사 채용 프로세스에 지원할 때 어느 계열사에 지원할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그룹사가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은행이라든가 정유사 같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단독기업에 지원할 때보다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화 기업들의 경우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합격 여

부만을 고민하면 된다. 그룹사 지원 시와 달리 어느 계열사에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독기업에 지원했을 때보다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직자들은 그룹사 지원에서 불편함과 불안감이 더욱 큰 것이 보통이다.

우리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차단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선택의 역설'은 '취업'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단어가 된 이유가 단순히 가중된 취업난 때문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혹시나 또한 취업 관련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박정호 KDI 전문연구원

■ 사회를 보다

부산외대 신입생 O.T 참가사건을 보며

지난 달 17일, 온 국민을 안타까움에 빠트린 사건이 일어났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이다. 붕괴 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이 열리고 있었고, 사고는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던 책임공방이 펼쳐졌다. 일각에서는 "학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산외대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O.T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사고이후 신입생 O.T를 앞두고 있던 각 대학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학생회 주관 O.T는 취소할 것이다", "우리 학교 O.T는 학교 측에서 주관한다" 등 일단투어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심지어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이후 브리핑에서 "학생회 단독으로 진행되는 O.T 등을 폐지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연 학교 측이 O.T를 주관했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학생들이 아닌 학교 관계자들이 사전답사를 했다고 한들 체육관이 얼마나 안전한 건물인지, 지붕 위의 눈이 위급수준으로 쌓여있는지 여부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 역시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누가 O.T를 주관했는지 간에 전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리조트 외부의 체육관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번 행사의 주관자가 부산외대 총학이므로 그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핵심은 사고가 난 체육관이 2009년 설립 이후 단 한번도 안전관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마우나리조트 측이 사고 하루 전날에 리조트 내 골프장에는 제설 작업을 했지만 체육관 지붕 위의 눈은 방치한 점이다. 행

사 일주일 전부터 경주지역 일대에 평균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리조트 측의 안일한 건물 관리가 빚어낸 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책임을 총학에게 몰고 학생회 주관 O.T를 금지하는 것은 물타기를 통한 학생회 지지권 침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물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변화는 기후에 맞게 건축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할 일이다.

이번 사고는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예방 가능한 인재였기에 더욱 안타깝다. 희생된 학생들의 억울한 과순식간에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감히 상상조차하기 힘들다. 사건의 원인을 낱알이 피쳐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상담 신청

-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 상담 기간 : 2014년 3월 10일(월) ~ 2014년 6월 13일(금)
-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졸업 논문, <사고와 표현> 과제물, 자기소개서 제외)
-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상담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 ②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본인의 신청 확인은 MY PAGE)
-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새내기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짓게 하자



교단에서

명광주 교수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

많은 축하 메시지를 받았을 새내기 여러분, 다시 한 번 한성대학교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기쁨, 행복감은 오늘을 준비를 해 온 여러분에 대한 선물입니다. 찬란한 젊음을 여는 대학생활을 충분히 즐기시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곡식처럼 준비한 만큼 이루는 것이 인생, 성공인생을 위해 팁을 주려고 합니다.

첫째, 대학생활은 여유롭고 차분하게 음악이 있는 축복처럼 시작하되 하루빨리 자신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배들은 새내기들이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또렷이 지을 수 있도록 악을 쓰며 구호를 질러대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대학은 이제까지의 것들을 리셋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새 땅을 찾아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놀라운 끼를 뽐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남들과 같은 쪽방을 바라보지 말고 경쟁영역을 특화해야 합니다.

셋째, 꿈과 희망을 준비해야 할 새내기들이 술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지 맙시다. 말쑥한 정신을 빼앗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선배

의 강요 권리도, 후배의 복종 책임도 없어야 합니다. 선배가 결코 후배의 출석과 성적,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신고주, 맹세주, 충성주, 사발주는 간에만 위대한 무책임한 선배들의 만용입니다.

끝으로, 우리 대학과 여러 교수님들은 2014년 새봄의 새내기들과 이전 봄들의 새내기들이 남다르게 아무진 꿈과 희망달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새내기들의 꿈과 희망이 성공 스토리로 자라고 머물어 우리 한성에게 알토란같은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설 일본은 정말 왜 이러나?

일본정권의 우경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망언의 수위도 점차 노골화, 일반화되고 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는 법이다. 일본은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다. 아베의 등장은 군국주의로의 일방통행과 맞물려 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의 속셈은 한국과 중국의 자존심을 해치면서 군사대국화의 방향으로 일본인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은 결국 제국주의 패권의 과장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철저한 미일 전쟁이며 원폭과 같은 비인간적 전술행위가 없었다면 무조건 항복이라는 치욕도 당하지 않았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원폭이 없었다면 소련의 남하를 우려한 미국이 적어도 한반도만큼은 양보하는 선에서 종전협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의 주인으로 행세하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독도 문제, 한국여성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시각인 것이다. 원폭에 의한 무조건 항복이 없었다면 A급 전범의 존재도 없었을 것이고 야스쿠니 참배도 정당한 것이 된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전쟁을 대동아 공영의 과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인도, 베트남과 같은 나라가 일본에 적대적이지 않은지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일본인들은 한일 관계의 미래는 일본이 한국 근대화를 견인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공헌(대일청구권과 한국의 가공산업 성장을 지원한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 등을 의미하는 것 같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논리로 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한미 동맹은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기초(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에서만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반역사적이며 반인륜적이며 그 피해의 당사자들은 온전히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우경화를 배격하는 것은 다시는 우리의 역에서 이러한 반인간적이며 야만적인 학살과 침탈, 인간성의 침해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의 관계에서 이러한 기준이 역대 국가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오로지 인간성 회복에 대한 절규인 것이다. 일본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국가 간의 역학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한 일본의 지식과 상식, 그리고 윤리의식은 천박하고 결국 후손들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만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본의 태도에 굴복하고 단지 경제나 안보와 같은 물질적 가치로 이제까지의 문제를 대충 덮어나기려 한다면 그것은 동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에도 결국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점을 가장 유념해야 하는 쪽은 물론 미국이다. 미국이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방치하고 애매하게 한일관계를 진전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제 2의 진주만 공습과 같은 부메랑을 맞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점에서 결연한 의지와 역사인식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미래에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나그네의 웃은 햇님이, 걸그룹의 웃은 누가?



기자수첩

신동석 기자
(행정 3)

절정 걸그룹의 노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걸그룹 노출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오죽하면 가족이 한자리에서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보기 민망할 정도일까?

최근 걸그룹들은 비슷한 점이 많다. 청순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데뷔했다가 컴백할 때면 웃을 하나 둘 벗고 나온다. 그룹의 발전을 위해 이미지의 반전을 준비하는 것인데 정해진 코스 같다. 그중 '스텔라-마리오투트'가 걸그룹 선정성의 정점을 찍은 듯해 보인다.

걸그룹의 선정성 문제가 하루 이틀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걸그룹의 노출대결은 성을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선정성 논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상품화', '관심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근에는 '정신적 성매매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걸그룹의 노출은 왜 이렇게까지 심해진 것일까? 단순한 시대의 흐름, 가요계의 아이돌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이돌의 상품화 등 걸그룹 선정성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한다.

아이돌 그룹 하나를 만드는데 약 17억이 소요되고 성공한 아이돌 그룹은 그에 수십 배가 되는 수익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결국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최강호(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걸스데이나 AOA의 경우, 섹시 컨셉으로 변경한 이후 음원 순위와 매출량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걸그룹이 상품화 됐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걸그룹 노출에 대해 소속사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포

털사이트 다음(Poll)에서 '걸그룹의 섹시 경쟁 어떻게 생각하세요?'를 주제로 실시한 투표에서 응답자 3,095명 중 무려 82%에 달하는 2,546명이 '절정 아예 지지만 하고,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대중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그룹 노출은 진행 중인 것이다.

대중들은 '걸그룹 노출은 문제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보인다. 걸그룹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노출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의 일종이 된 것이다.

누가 걸그룹에 웃을 자꾸 벗기는 것일까? 비판하면서도 관심을 갖는 대중의 문제일까.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하는 소속사의 문제인 것일까.

그들은 부재중

지난겨울부터 지금까지 우리학교는 시끌시끌했다. 대학가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치보 열풍, 성적 세척 변경, 총학 선거 논란 등 많은 사건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중 아직까지도 화자 되는 것은 바로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과 김세원 전 학생복지위원장의 비리일 것이다.

민고 투표했던 우리의 후보는 학생들의 신뢰를 깨며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해당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가 아닌 새로운 총학과 중앙기구가 건설된 이후, 즉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얕은 데 얕은 격으로 총학생회장이 필요한 사안에 그들은 부재중이었다. 바로 성적 세척 변경의 순간이었다. 학생들은 학생을 대변해 학교와 맞서줄 학생회를 찾았지만 그들은 부재중이었다. 새롭게 뽑힌 총학은 사실상 임기 시작 전이기도 했다. 낙산의 메아리에서는 학생들의 성도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를 듣고 해결해 줄 이도, 규탄한 내용에 대해 사과해 줄 이도 없었다. 그들은 부재중이었다.

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총학생회장은 두 명이었지만 아무도 학생들을 대변해 줄 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 학생들의 규탄에 응해 준 것은 인문대 학생회뿐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임기가 끝난 전 총학생회와 실질적으로는 임기 시작 전인 현 총학생회 사이에서, 올해 2월, 학생들은 그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그 어디에도 기릴 수 없었다.

김진호 전 총학생회장 사건은 현 총학을 필두로 한 중앙위원회를 통해 알려졌다. 여전히 진행중인 것일까? 사과는 안 하는 것일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들은 모두 아직까지 부재중일 것이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총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신뢰는 산산이 무너졌다. 전 총학생회로 인한 신뢰의 부재는 현 총학생회가 고스란히 간내해나야 할 것이다. 부재중인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현 총학생회가 먼저 소통의 수화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매는 건 즐겁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낙산에 올라

이창민 학생
(한국어문 4)

나의 겨울방학 소망은 거창할 거라곤 하나도 없었지만 꼭 해내리라는 다짐만은 원대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했다. 개강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찮았던 내 소망은 너무나도 거창해졌다. 그건 바로 친한 동기들을 모두 모아 즐거운 술자리를 갖는 것.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 일 따위를 소망으로 삼는 나를 정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났다. 하지만 내 나이 올 해로 스물다섯, 취업과 수험 준비로 바쁜 친구들과 함께 '술 한 잔 하자'는 이야기 꺼내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친구들은 졸업했다. 졸업식 날 저녁 늦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미 취업을 한 친구도 있었고, 대학원 준비 중이거나 수험생인 친구도 있었다. 그중에 취업 준비에 한창인 한 친구는 졸업식에 못 갔더라.

바로 다음 날이 면접이라 준비할 게 많다는 게 이유였다. 늘 '열심히'인 그 친구의 모습을 알기에 꼭 물어서 한 톨 쓰라고 기분 좋게 웃으며 응원해줬다. 그런데 난 사실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졸업식도 뒷전일 정도로 치열해야만 하더니, 비단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다. 어쩌면 내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문득, 지난여름 오랜만에 모인 술자리에서 다음 날 일정 때문에 일찍 일어나며 아쉬워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떤 어른들은 지금 우리들, 20대가 너무나 나아한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냐며 한심하게 바라보기도 한다. 그렇게 어른들은 우리가 쉬는 한숨에 '애써' 참견한다. 하지만 난 기꺼이 멘트가 되어주겠다는 명사의 강의를 이제는 싫다. 서점에 널리고 널린 자기계발서도 지긋지긋하다. '자

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전공과 목도 마찬가지다. 내가 거기서 느낀 건 공허함뿐이다.

계획을 세우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우리는 몰라서 해매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해매는 건 즐겁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 시험만 잘 보면, 대학만 잘 들어가면, 전역만 하면, 그리고 이제 취업이다. 다음엔 집과 차, 결혼과 육아일 거다. 언제쯤 좀 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일만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 난 지금 즐겁고 싶다.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 일 따위가 오직 나만의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이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14학번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행동'입니다



한성인끼

이중혁
총학생회장
(정통 4)



유지혜
부총학생회장
(영어영문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새 학기를 이끌어갈 제30대 '행동'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중혁·부총학생회장 유지혜입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은 마지막 확장시절이자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알아가고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대학에서의 4년은 여러분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꿈이 생각해 앞으로의 4년을 잘 설계한다면 그 누구보다 더 깊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달려 나갈 때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서있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삶,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2년간 꿈꿔왔던 대학 캠퍼스 생활, 계획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 자유 속에 마음껏 누리십시오. 본인의 학과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활동, 수많은 문화를 접하여 조금 더 알찬 대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행동, 자신의 결정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고 의미를 부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많은

것을 겪고 누리게 되기를, 저희 총학생회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대학들 중에 한성대학교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변화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각자의 목표를 이루고, 처음 다짐했던 꿈을 위해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몫이며 준비된 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준비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새내기 여러분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낙산만평

성민진(시각영상 4)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가?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 있어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어느 걸그룹의 노래 가사처럼 난 너무 예쁘다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 당신은 스스로가 어떤 보이는가?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것이다. "난 역시 멋져"라거나 "난 여전히 못났어"라거나. 당신은 전자인가 후자인가? 나 자신에 대한 이러한 만족감은 비단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위치와 재력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자존감이라고 부른다. 자존감은 대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하는지를 사회심리학자 박진영씨에게 들어보았다.



누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자존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한 채, 단점에만 연연하고 자책하는 사람 말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 '자존감이 낮다'고 말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자존감이 높다고 말한다.

자존감과 자신감 사이

자존감과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 바로 '자신감'이다. 우선 자신감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감은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무엇일까? 자존감은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선 개념이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 자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신감은 자신이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능력에 대한 믿

음이고 자존감은 능력이 어떻든 간에 그 능력을 가진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자신감이 높다고 해서 꼭 자존감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자신감이 높은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 그로 인해 자신을 자책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높지만 자존감은 낮은 사람일 것이다. 반대로 자신감은 낮지만 그러한 자신을 정확히 알고 존중하고 만족한다면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것이다.

자존감의 높고 낮음

학력·재력·명예 등이 높으면 대개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만큼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듯 자존감은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이다. 그렇기에 학력·재력·명예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존감의 높고 낮음은 정도에 따라 좋고 나쁨이 있을까? 분명 낮은 것 보다는 높은 것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자존감이 높아도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변하는 것보다 약간 낮더라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 즉 안정적으로 자존감이 유지되는 상태가 '건강한 것'이다.

자존감과 행복의 관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더 행복할까? 물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하지만 이렇게 자존감만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존감이 높아서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다는 것 자체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자존감이 높으면 '공부도 잘하고 리더쉽도 좋고 교우관계도 좋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다.

그렇기에 자존감을 높이겠다고 자기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Push)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존감이 건강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건강해진다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

쏟아지는 자기계발서와 청춘의 도전과 꿈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안녕하신가? 시류에 휩쓸리는 도중 '나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분명 나 자신은 충분히 만족스러 운데 주위에서 그렇게 두지 않을 때, 나의 소박한 꿈이 다른 이의 거창한 꿈 앞에서 작아 보일 때, 나의 존재가 더 작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는 바로 자존감의 기준이 사회와 타인의 잣대에 의해 흔들렸기 때문이다.

학벌복합플렉스가 그 예이다.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기만족의 잣대를 높은 학벌에 두고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에 학벌복합플렉스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존감의 기준이 지나치게 타인과 외부에 치우쳐 있다면 삶이 괴로워하지 않을까?

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 역시 타인의 인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타인과 외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수많은 타인 중 중요한 사람(Significant Other), 즉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족·연인·친구의 인정을 자존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베풀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자신을 평가하고 존중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의미 없는 연애를 반복하는 당신이라면

혹시 의미 없는 연애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존감이 낮아 소속감을 갈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연애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허전함이 싫어서 혹은 솔로인 자신이 싫어서 연애를 지속하는 것은 아닌지? 연애를 통해 소속감을 얻고 연애를 하는 사실에서 자존감을 채운다면 이는 결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만심과 자존감의 경계에서

반대로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기만족을 넘어 타인 역시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여겨주길 바라고 그와 동시에 타인을 무시하며 이를 당연시 한다면 이는 자만에 빠진 것이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만큼이나 타인을 더 신경 쓴다.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들은 무시하고 자신만 칭송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존감의 개념과 자존감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 보았다. 성격이 소심하고 소극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존감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성격이 대담하고 적극적이라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것 역시 아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 어떤 성격이든간에 '나' 자체에 만족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멋진 사람이 아닐까? 당신은 지금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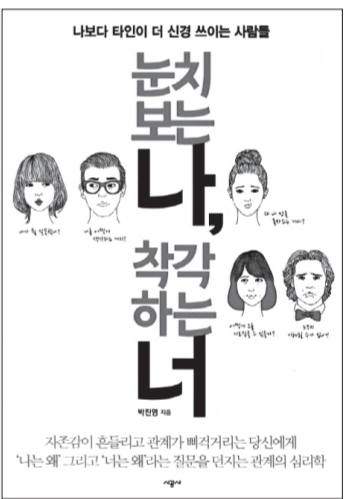


친절한 사회심리학자 박진영씨

『눈치 보는 나, 착각하는 너』의 저자이자 본지의 학술면 심리학과 정 칼럼 코너 <심리심리>를 담당해 줄 그녀를 만났다. 이번 호 학술면 자존감 기사는 친절한 심리학자 박진영씨의 자문을 구했다.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주로 사회성, 신뢰, 이성관계 등 사회심리학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심리학의 흥미로운 이론과 연구를 소개하는 '지농농의 사회심리학 블로그' <http://jinpark.egloos.com>를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이너피즈 (Innerpeas) <http://innerpeas.as>에서 역시 다양한 칼럼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녀가 설명해주는 사회심리학의 소재들은 우리에게 꽤 친근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더 많이 먹는지, 막대한 목표와 우울함의 관계, 졸릴 때 잠을 이겨내기 위한 먹는 심리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회심리학으로 풀어낸다.



그녀의 저서 『눈치 보는 나, 착각하는 너』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관계속에서 마주하는 '나'와 '너'를 분석한다.

대인관계 속에서 작아지는 '나'를 한 번쯤 발견한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심리심리

혈액형 성격론을 믿나요?

아주 오랫동안 대학가를 비롯하여 기자까지 사실인양 이야기되는 '혈액형 성격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사람들의 성격을 측정할 후 혈액형 별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이게 진짜 당신만의 이야기? 바넘 이펙트

"때론 소심한데 때론 대범. 사실 보기보다 외로움을 잘 탐. 안 그런 척 하지만 상처도 잘 받음. 때론 불친절하지만 따뜻한 때도 많음" 어떤가 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인가?

100% 맞는 심리테스트의 비밀이 알고 할까? 위의 이야기는 사실 정도는 달라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대충 조합해서 내놓으면 사람들은 '완전 내 얘기!'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사실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꼭꼭해서 내 얘기를 한 것 같이 느끼는 현상을 바넘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별별 가지 심리테스트들이 신뢰를 얻으며 죽지 않는 것이다.

혈액형 성격론도 마찬가지이다. ~형이 소심하다고 하는데 조금도 소심하지 않은 인간이 존재할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소심, 활발, 싸가지)

을 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어느 정도'는 해당되어 쉽게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2. 구분짓기

혈액형 성격론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인간을 '구분'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와도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종'이라는 것도 흑 VS. 백으로 완벽하게 나누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등 '자기 편'을 색출할 필요(동기)를 높여 주면 애매한 사전에서도 '이 사람은 흑인! 저 사람은 백인!'이라며 엄청 잘 구분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혈액형 성격론도 복잡한 인간들을 머리 쓰지 않고 쉽게 파악하고 싶다는 욕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을 쉽게 찾고 싶다는 욕구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비단 혈액형 성격론뿐 아니라 출신 지역이나 성(sex) 같은 걸로 인간을 규정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들이 비슷한 기능을 하며 계속되고 있다.

3.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은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예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군"이

맞겠지만 "자 여기 결론이 있어. 여기에 맞는 증거들은 뭐가 있지?" 역시 우리 마음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를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혈액형 성격론을 믿는 경우에도 사실 혈액형이 같아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훨씬 많은데도 이런 증거들은 모두 기억한 채 어쩌다 혈액형 성격론에 부합되는 증거를 찾으면 '거봐 내가 맞지'라고 하는 식이다.

그래도 '확인'할 수 있다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지만 얼마나 확신하는지도 정보의 참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일례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아주 강하게 믿는다. 나치는 유대인들이, 식민지 시대의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열등하다고 아주 강하게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주관적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의 정확한 반영이라기보다 내 욕구들이 함께 버무려진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4.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어때?

혈액형 성격론을 '재미'로 본다고 해도 우려되는 것이 연구에 의하면 혈액형 성격론을 강하게 믿게 되면 실제로 비슷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난 ~형이니 성격이 이렇다"고 하면서 관련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내 행동들을 합리화하고 강화하고 있던 않은가?

마지막으로 혈액형이나 인종, 출신 지역 등 무엇이 되었든 부정확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초해서 타인을 마구 단정짓는 모든 일들은 사실 '차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혈액형으로 사람을 뽑겠다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걸로 보기에는 무해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을 엄청 구분 짓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호적 형태의 차별'이라고 한다. 때로는 이런 우호적 형태의 차별이 공격적인 차별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거부감 없이 쉽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어디 출신'들은 이렇듯~ 여성/남성은 이렇게 다르대유의 수 많은 가십 거리를, 웃기지마! 알고 보면 인종, 지역, 성차별적인 농담들도 그 예가 된다. 따라서 혈액형 성격론을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간을 구분 짓는 '재미'로 하는 이야기들을 의식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혈액형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자.

(사회심리학자 박진영 @maum0217)

가로세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II 가로

- ① '신입생' 또는 '신출내기'의 뜻으로, 새로 만들어 쓰는 말.
- ② 진리관과 우순관 사이를 줄여서 부르는 말.
- ③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 ④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임.
- ⑤ 통관 절차를 이행하거나 화주 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상 경송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직업인.
- ⑥ 인정과 사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⑦ 억울한 일이나 결말된 일, 딱한 사정 따위를 간곡히 호소함.
- ⑧ 성장하는 동안 또는 성장하는 시기.
- 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 복.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포럼소식

2014 CREATIVE ARENA 영크리에이터 마케팅 페스티벌

- ▶ 일시: 2014년 3월 7일 금요일 ~ 3월 8일 토요일
- ▶ 장소: 코엑스 C-4 홀
- ▶ 내용: 광고계의 전설들과 글로벌 브랜드의 마케팅 수장들의 토크콘서트 / DJ 애프터 파티
- ▶ 신청: 2월 24일 티켓 오픈 / 당일 현장판매

2014 제4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움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 -

- ▶ 일시: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14:00~16:00
-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 ▶ 내용: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통일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
- ▶ 신청: 참가비 무료 / 3월 7일 금요일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Tel. 02-3771-0454

2014 새내기, 여기 있습니다

대학생 새내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의 금기가 풀리는 소중한 순간. 지금 이 순간 새내기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 2014년 한성대학교에서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할 새내기들을 만나보았다. 한내기들은 이렇게 귀여운 새내기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니 절로 입꼬리가 들쭉거리길 것이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이 라 현
산업경영공학과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그런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 시험기간에는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하고 봄가을에는 미팅도 하고 그렇게요.”



명수진
역사문화학부

“영화나 드라마 속의 그런 제단식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싶어요.”



최진신
정보통신공학과

“수강신청을 잘 할 수 있을까. 제일 걱정이 돼요. 다들 자기 원하는 강의 모두 신청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강대욱
부동산학과

“미학생이 되면 빼놓지 않을 때를 만들고 싶어요. 쿠내에 지방 곳곳으로요. 해외여행도 기회가 된다면 갈 계획이에요.”



최수현
부역학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싶어요. 강의도 같이 듣고 여러 활동도 같이 하고요.”



이지현
산업경영공학과

“우선 전공공부를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어떤 과인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와 잘 맞는지 알고 싶어요.”



길보경
영어영문학과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문득 걱정이 돼요. 계획대로 수강신청 잘 하면 원하는 수업도 듣고 성적도 잘 나올 수 있겠죠?”



윤연준
역사문화학부

“선배님들이랑 친목을 다지는 계획이 자주 참여하고 싶어요. 다음 기회에 MT나 답사에 가서 친해지고 싶어요.”



박지연
의생활학부

“ROTC 선배님들, 저희 과 선배님들 정말 혼 혼하신 것 같아요!”



이성근
산업경영공학과

“권 남중남고 나왔어요... 여학생들과 같이 수업 듣는다는 걸로 충분히 설레요.”



최주원
영어영문학과

“강학급도 받고 고학년이 되면 디즈니 인턴십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소거링도 하고 싶어요.”



김도연
의생활학부

“희외봉사나 희외인턴에 때려서 좀 들었는데 저도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어요.”

학교C

학교C: 핵심교양(어는)은 치명적인 매력의 문화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하는 기사 코너입니다. 교내 교양 중 가장 치명적인 감각인 핵심교양 A, B와 같이 한성인이 교양을 쌓는데, 상식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봄날의 축제

그린 플러그드 서울 (: GREEN PLUGGED SEOUL 2014)



5주년을 맞이해서 그린피플들을 위해 보다 맛있는 축제를 기획한다. 이 음악 축제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환경캠페인의 강화, 깨끗한 축제, 인디 음악의 저변확대, 소통, 다양한 즐거움이 그것이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환경을 위한 실천이 공존하는 음악축제로 이 그린 플러그드 서울을 말할 수 있겠다. 장기하와 얼굴들, 어반자카파, 문명진, 커피소년, 어쿠스틱 플라보, 몽니, 강산에, 정기고, 닥펄스, 범키, 타루, 소심한 오빠들 등 라인업으로 공개했다. 아직 3차, 최종업 라인업도 남아있으니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기간 : 5월 3일 토요일~5월 4일 일요일(13:00~22:00)
장소 : 난지한강공원
주최 : (주)그린플러그드
문의 : 1544-6399(에스24공연)
예매 : ticket.yes24.com, 일반예매 1원권 성인기준 66,000원, 양일간 성인기준 109,000원

제 8회 서울재즈페스티벌 2014 (: Seoul Jazz Festival 2014)



한여름 밤의 시원한 페스티벌과 다른 따뜻한 봄의 페스티벌이다. 캠프바드 돗자리와 쉼터는 음식과 함께 재즈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매력적이다. 현재 발표된 라인업은 제이미 컬럼, 잭 드조네트 트리오, 크래 데이빗 디제

이 세트, 제럴드 앨브라이트, 송영주 퀸텟, 어반 자카파, 정준일,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 이동우, 선우정아, 데미안 라이스, 조슈아 레드맨 퀸텟 등으로 여러국가를 막론하고 재즈음악의 대가, 유명 음악인들이 공연할 예정이다.
기간 : 5월 17일 토요일~5월 18일 일요일
장소 : 올림픽공원 88전지마당, 수변무대, 체조경기장 등
주최 : SBS, (주)프라이빗커브, (주)인터파크INT,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 : 02)563-0595
예매 : 인터파크, 2월권 195,000원(얼리버드는 175,000원)

새내기 때 이런 애 꼭 있다

1. 수능 성적자랑, 너랑 나는 굵이 달라

이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을 우리 동기. 그런데 이런 신입생 꼭 있다. “나는 하필 이번 수능 때 망해서”, “지원서를 잘 못써서” 수시로 입학했다든 정시로 입학했다든 추가합격 이든 수능 성적은 정말 금방 잊혀져. 수석으로 입학한 동기가 수석으로 졸업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과거 수능 성적을 운운하고 있는 새내기가 바로 너라면, 나중에 후회 말고 현재 대학생활에 충실하길 바래.



2. 안 취했어 안 취했어~워

대학생의 자유와 성인이라는 행복에 취해 이모임 저모임 다니다 보면 술을 마실 기회가 적지 않을 거야. 술을 마시고 분위기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단 몇 가지 조심할 게 있어. 하나, 자신이 취하는 정도를 알아 둘 것. 제일 중요해. 취하지 말 것. 취하다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주지 말 것. 술자리는 낯선 사람들과 친목을 잘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너의 만취역사는 길이길이 구전되어 동기들의 술자리의 안주거리가 될 테니 적당히 해.



남잔 다 똑같아?



문화읽어주는 기자
오그림

남자친구와 소속 대학은 달랐지만 지취하는 남자 친구 덕분에 하루 종일 알콩달콩한 연애를 할 수 있었다. K의 연애 때보다 물을 가로마는 장애가 없던 터라 나는 이 둘이 꽤나 오래 사귄 줄 알았다. 하지만 또 K는 헤어졌다. 이번엔 성격차이가 이유라고 했다.

남의 연애, 나는 들어주면 그만이었다. K가 누군가와 좋은 감정을 가질 때면 난 부러워하면 되었고, 누군가와 잘 안 이루어지면 난 위로해주면 됐다. “그래 그래, 그 놈이 못된 놈이네” 그리고 K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쯤이면 꼭 말했다. “남잔 다 똑같아!”

남잔 다 똑같아?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였다. 이 실패한 연애의 원인은 바로 너(상대)였다. 핑계다. K를 마주한 나는 맛장구를 친다. “그래 다 똑같은 놈들이지” 당연히 남자(여자)가 다 똑같은 리 없다. K의 여러 연애가 때때로 똑같은 조건, 같은 환경, 같은 성향의 상대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서 K는 외국인과의 이별이 아닌 장거리 연애를, 그리고 한국인과 아주 가까운 근거리의 연애를 했다. 분명 다른 조건의 연애였다. K와 지구 반대편상의 두 남자와의 이별은 K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로써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다. 똑같지 않다는 것. 똑같은 남자(여자)를 만나게 아니라 똑같은 연애를 했다는 것. 새 봄이 왔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계절. 새로운 상대를 마주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당신이라면 당신은 또 똑같은 연애, 같은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도 당신이 만나는 이성이다 똑같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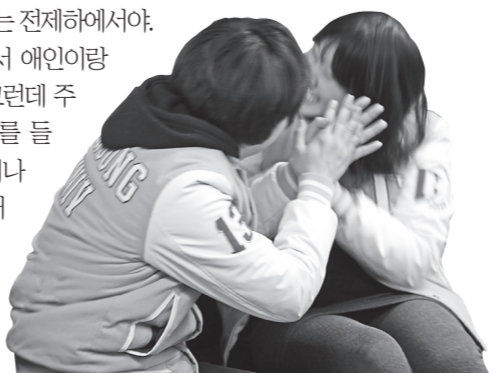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10				
11	전공1			백A
12	사교와표현			백B
1		대지		백C
2	전공2			백A
3	영어2		기초교양	
4				

3. 공장따위 필요 없어

아, 도민준이야? 순간이동 막 할 수 있어? 처음 자기만의 시간표를 짜는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공장 하나 없이, 밥 먹을 시간 하나 없이... 뽀빠이 시간표 짜는 거 말아야. 물론 1학년 맨 기초교양, 핵심교양 A, B, 전공기초 등 참여해야 할 수업이 많긴해. 하지만 말야. 교수님들이 항상 제시한 수업을 마쳐 주실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처럼 대부분의 수업이 한 강의실에서 진행되지 않아.

4. CC로 흥한자 CC로 망한다.

말 그대로야. CC, 즉 Campus Couple로 이 새 캠퍼스 생활을 시작한다면 첫 봄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지만 여름, 가을, 겨울은 보장할 수 없을지도. 물론 헤어진다는 전제하에서야. 너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애인처럼 잘 사귄 수 있다면 문제없어. 그런데 주위에 헤어진 CC친구들 이야기를 들 어보면 주위 학교 사람들 눈치나 같이 듣는 수업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부디 CC라고 시간표따라 똑같이 짜고 나중에 눈물 짜며, 전부 재수할 것 생각하지 말고.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한성대신문



• 현정은 (무역 12)
• 취재부 기자

• 신동석 (행정 12)
• 취재부 부장

• 오그림 (무역 12)
• 문화부 부장

• 한재원 (행정 12)
• 편집국장

• 김근영 (행정 12)
• 사회부 부장

제39기 수습기자 모집

언론의 중심 한성대 신문사입니다.

한성대 신문사에서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학내 소식과 사건·사고,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사회이슈·문화비평·학술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저희 한성대 신문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발로 뛰는 열정, 다음은 당신입니다.

■ 지원자격 : 14학번 재학생 (인문대, 사회대, 예술대, 공과대 학생 모집)

■ 모집분야 : 학내 뉴스 및 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 기자임기 : 입사 후 4학기

■ 기자혜택 : 매월 기자 활동비 지급 및 원고료 지급, 임기완료 후 기자 인증서 발급

■ 선발전형 : 1차전형-신문사 방문 후 입사지원서 작성

2차전형-서류심사 후 면접

■ 문의사항: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 1236047@hansung.ac.kr

■ 신문사위치: 우촌관 옆, 기업은행 맞은편 제1학생별관 2층 Tel.02-760-4186